

재외동포의



2013 9월호

특집 : 4~7

한글교육 노하우를 나누다

2013년 재외 한글학교 교사 59개국 196명 초청연수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선비들의 고결한 정신이 서려 있는 서원



서원은 한국인의 건축관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드높은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 유산이다.

이곳은 조선의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으로 선비 정신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귀중한 정신이다. 서원은 국립 학교인 성균관과 향교가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의 대안으로 선비들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학문을 닦고 후진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서원은 규모가 작고 화려롭지 않은 간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허례를 멀리하고 겸손함을 찾는 선비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다. 서원에 백일홍을 심는 이유는 나무 껍질이 얇아서 속이 다 비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를 바 없이 살자는 이상이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다. 도산서원, 소수서원, 병산서원 등을 방문하면 그 고고한 이상과 전통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2	한국의 열	선비들의 고결한 정신이 서려 있는 서원
3	목차	
4	특집	한글교육 노하우를 나누다 2013년 재외 한글학교 교사 59개국 196명 초청연수
8	기획	“한민족 정체성 확립하고 자긍심 느낀 뿌듯한 시간” 2013 재외동포 청소년 2차 모국연수 성료
12	현장의 목소리	‘애니깽’ 후손들의 뿌리찾기 “모국의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동포재단,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40명 초청연수
14	화제	‘모국어 사랑’으로 빛은 동포문학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응모 1천225편 중 수상작 30편 선정
18	OKF 뉴스	“재외동포 이해교육 내실화·체계화 절실” 외
20	글로벌코리안	“이익 사회 환원은 경영의 주요 덕목” 권철민 스페인 인터불고 그룹 이사 & 인터불고CC 대표
21	한민족공감	차대통령 “日, 과거 반성하고 풀어야”
22	지구촌 통신원	美 글렌데일에 해외 첫 위안부 소녀상 가주한미포럼 제막... 美 정치인들 ‘日 진정한 사과’ 촉구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24	나의 살던 고향	물빛 산빛 청아한 신비의 섬 울릉도
26	공지	



표지

해외에서 동포 자녀 및 현지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익히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올해도 풍성하게 열렸다. 교사들은 경주에서 찬란한 문화 유적 답사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했고, 학교 경영과 리더십, 우수 강의 시연 및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발행인: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31일부터 7박 8일간 59개국 한글학교 교사 196명을 대상으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펼쳤다.

한글교육 노하우를 나누다

2013년 재외 한글학교 교사 59개국 196명 초청 연수

해외에서 동포 자녀 및 현지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재외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익히는 자리를 마련해온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올해도 풍성하게 열렸다. 교사들은 경주에서 찬란한 문화 유적 답사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했고, 학교 경영과 리더십, 우수 강의 시연 및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31일부터 7박 8일간 59개국 한글학교 교사 196명을 대상으로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펼쳤다.

이번 연수는 이날부터 8일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The·K 경주호텔에서 진행됐다. 연수 대상자는 유럽 30명, 독립국가연합(CIS) 9명, 북미 68명, 중남미 16명, 아시아 43명, 대양주 14명, 아프리카·중동 16명 등 59개국 한글학교 교사 196명이다.

7월 31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조규형 재단 이사장은 “개인적인 희생과 열정이 없으면 한글학교에서 봉사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한 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학교가 더 경쟁력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역사박물관을 관람했으며 개회식을 마친 뒤 승례문을 견학하고 경주로 이동했다.

연수 기간에 참가자들은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강사진의 학년별 교수법 강의, 우수 강의 시연, 한국어 교수법 문화·예술 매개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이외에도 지역협의회 운영 우수 사례 발표 및 토의, 학교·가정과 독도 관련 특강, ‘한국의 역사와 인물’ 강의 등의 프로그램과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지를 답사하는 역사·문화 체험 시간도 이어졌다.

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교사 초청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광화문서 ‘한글사랑’ 홍보

“한글은 수많은 문자 가운데 과학적으로 가장 우수합니다. 전 세계에 산재한 2천여 개의 한글학교는 동포 자녀뿐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한글을 알리는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식에 참석한 196명의 교사들은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과 한글학교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은 한낮의 불볕더위 속에도 ‘한글 사랑 한글학교’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시민에게 한글과 한글학교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알렸다.

퍼포먼스에 참석한 강용진(60·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참가자들은 국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강사진의 학년별 교수법 강의, 우수 강의 시연, 한국어 교수법 문화·예술 매개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교사들은 경주에서 불국사,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찬란한 문화유산을 관람했다.

(NAKS) 회장은 “동포사회의 뿌리 교육을 지탱하는 한글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 봉사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지키는 한글학교에 대한 모국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동포 차세대들이 우리말과 글을 잊지 않으면서도 거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글학교가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 한류 확산으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한글학교를 찾는 현지인이 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홍보했다.

이날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글학교 알리기에 나선 것은 한국 정부가 최근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 설립을 늘리면서 한글학교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된 것도 한몫했다

최정인(56·여) 세계한글학교협의회 회장은 “세종학당이 외국인 대상에 하고 있지만 미주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동포 차세대 역시 국적은 외국인”이라며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폭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교사들은 민요와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더 넓혀야 한다. 동포사회가 처한 현실에 맞는 교재 개발과 보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K-팝, 드라마, 서예로 가르치면 효과 만점” 사례 공유

경주로 이동한 교사들은 8월 1일, 특강이 열리는 경상북도 경주의 The·K 경주호텔에 모여 서로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연수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뿐 아니라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케냐, 모리타니 등에서도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미국 뉴저지 한국학교의 방지현 교사는 이날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TV 드라마와 K-팝 스타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해 한류 스타가 나오는 영상에 더빙 녹음을 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더 나은 발음을 위해 연습을 거듭한다는 설명을 곁들이자 영상·음성 편집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져나오기도 했다.

베이징 한글학교 김매선 교사도 “변화에 민감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이들이 한글학교 수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게임을 활용한 교육법을 소개했다.

프랑스 오를레앙 한글학교는 한글반과 사군자·서예반으로 나눠 한글의 조형 원리, 사군자의 기본 소양과 한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학교 신진규 교사는 “언어 학문 습득뿐 아니라 문화체험으로 다가가는 만큼 한번 매력을 느끼면 오랫동안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우수학교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미주 지역의 한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서 와서인지 말도 안 듣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역사, 문화와 접목해 교육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며 “동기 부여가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날 교육 사례를 나눈 뒤 지역별 분과회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열띤 토론 속 “학교 명칭 통일 필요” 등 의견도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인학교’ 등으로 불리는 학교 이름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교사들은 8월 7일 경기도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륙별 교사 분임 토론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를 여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한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수에 참가한 최정인 미주한국학교연합회 회장은 “미주 지역의 학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도 심어주고 있어 많은 학교가 명칭을 ‘한국학교’라고 쓰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한글학교’ 역시 인성교육 등 다양한 수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단순히 어학만 전수하는 학교와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 세계에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한글학교는 2천여 개에 달한다.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쓰는 공식 명칭은 한글학교.

재단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한국학교와 혼선을 피하려고 한글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설립된 학교 명칭을 어느 것으로 하라고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

았다.

교육부는 해외에서 현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에 한해 '정규 한국학교'로 인정해 교사 파견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 세계 15개국에 30개교가 있다.

신현숙 유럽한글학교협의회회장은 “한인학교는 교육 대상이 한인에만 국한된 것이고 교육부 인정 한국학교는 정규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도 한국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므로 혼선이 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개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대표들은 토론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학교 명칭 통일과 브랜드화를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정미 뉴질랜드 와이카토 한국학교 교장은 “18년 전 학교 설립 당시에는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을 가르쳤기에 한국학교로 정했지만 지금은 한국어, 역사, 문화 수업이 중심이라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모여 명칭을 통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글 교육 성공위해선 '가정 교육' 중요

교사들은 또 학교 교육이 성공하려면 가정과 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현숙 회장은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만으로 한국어 실력과 정체성이 키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학부모 참여수업, 숙제 확인, 한국어로 대화하기 등 가정에서 부모가 협력해줘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성 이탈리아 로마 한인학교 교장은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며 “아버이날 편지 쓰기와 각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박 교장은 이어 “현지 출생으로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군대에 자원입대하는 한글학교 출신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열의를 불러 넣기 위한 교사들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됐다.

이애란 케냐 한글학교 교사는 “여러 음식을 활용해 직접 만들고 먹어보고 또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하게 하여 학생들의 오감 증진과 참여를 제고를 꾀하고 있다”며 푸드 아트를 통한 글쓰기를 소개했다.

중국 베이징 한글학교의 김매선 교사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8월 7일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회장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에게 주입식 일반 수업은 흥미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재미를 통한 수업 참여 유도를 위해 KBS 2TV ‘1박2일’의 행동과 표정으로 단어 맞히기, KBS 1TV ‘가족오락관’의 ‘이구동성(異口同聲) 게임, KBS 2TV ‘스타 골든벨’의 ‘한 글자 말하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7박8일의 일정을 마친 교사들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서 열린 수료식에 참석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교사 여러분의 열정과 봉사 덕분에 차세대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동포사회와 모국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치하하고 “정부 예산 삭감 분위기 속에서도 한글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예산은 한 푼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초청연수기간에 세계 지역별 한글학교협의회 대표자 협의체인 세계한글학교협의회의 3대 회장으로 남도우(48) 중남미 한글학교 협의회장이 뽑혔다.

미주 등 8개 지역 한글학교협의회 대표들은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기간 총회를 열고 남 회장을 임기 1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투표제이던 회장 선출 방식을 8개 지역 협의회장이 돌아가며 맡는 순번제로 바꾸고 연임 기능 조항도 폐지하기로 협의했다.

남 회장의 임기는 내년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종료일까지이며, 차기 회장은 아프리카·중동 한글학교 협의회장이 맡게 된다.

8월 8일 임기를 시작한 남 회장은 “세계한글학교협의회는 별도의 단체라기보다는 각 지역 대표들의 협의체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학교들도 한글학교 간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장**



“한민족 정체성 확립하고 자긍심 느낀 뿌듯한 시간”

2013 재외동포 청소년 2차 모국연수 성료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으며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2차 초청연수에 참가한 대학생은 서울과 제주, 광주에서 모국을 체험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이 동포 차세대들의 ‘한민족 정체성 심어주기’를 위해 실시하는 ‘2013 재외동포 청소년 2차 초청연수’가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2차 연수에는 세계 27개국에서 한인 대학생 306 명이 참가했

다. 제주도에서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를 위해 제주 대학생 30명도 함께했다.

7월 30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2013 재외동포 청소년 2차 초청연수’ 개막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로 “연수를 통해 한국과 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친

구와 가족을 갖게 될 것”이라며 “두고두고 남은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석에 앉지 않고 서서 진행한 개막식은 ‘클럽파티’ 등 흥겨운 무대로 꾸며져 참가자들은 손뼉을 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서로 어색한 감정을 녹여내기도 했다. 이어서는 ‘애쉬드레이’ 락 그룹의 축하공연으로 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김 크리스티나(22) 양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에게 태어났는데 같이 온 친구들 모두 한국방문은 처음”이라며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제주 탐방이 꿈만 같다”고 기뻐했다.



- 1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제주를 찾은 전 세계 27개국 동포 대학생 306명이 8월 1일 오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앞 로터리에서 '세계가 찾는 보물섬 제주, 평화의 섬 제주, 유네스코 3관왕 제주'라는 피켓을 들고 춤을 추며 제주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2 제주를 찾은 학생들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용두암 앞에서 '제주사랑' 포즈를 취하며 제주 홍보를 다짐하고 있다.
- 3 2차 초청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선상프로그램을 체험했다.
- 4 제주 협재 해수욕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해변올림픽을 열어 참가자 간의 우의를 다졌다.
- 5 참가자들은 제주 리조트에서 열린 바비큐파티 시간에 즉석 숯불구이를 나눠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차 연수 대학생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배편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문화 탐방 등을 펼쳤다. 또, 광주로 이동해 남도문화를 체험하고, 무등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도, 참가 대학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

31일에 참가자들은 서울과 인천에서 6개 코스로 나뉘어 도시탐험 활동을 펼쳤다. 주어진 장소를 찾아가서 과제를 수행하는 그룹별 역사체험교육 활동으로 이들은 서울에서는 한옥마을과 궁궐, 남대문 시장을 둘러보았고, 인천에서는 월미도와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한국전쟁의 장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31일 저녁 인천항에서 제주행 여객선에 탑승한 참가자들은 선상포럼, 소그룹 활동을 보내고 늦은 밤에는 선상 불꽃 축제를 관람했다.

1일 9시에 제주항에 도착한 이들은 제주대 학생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용두암을 비롯한 제주의 생태문화체험을 펼쳤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8월 1일 오후 제주시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참가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명예홍보대사' 위촉장과 티셔츠, 모자 등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모두 보유한 지역은 제주도밖에 없다"며 "평화의 섬 제주를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의 김미연(21·여) 양은 "처음 찾은 제주도의 경관이 빼어나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라며 "돌아가면 평화와 관광의 섬 제주를 주변에 홍보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프랑스에서 온 정형식(21) 군은 스마트폰으로 제주의 풍경과 모습을 찍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리며 제주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독일에서 온 권오경(25·여) 양은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통합 블로그 개설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주국에서 벌이는 다양한 제주 홍보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제주항에 도착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앞 로터리에서 '세계가 찾는 보물섬 제주, 평화의 섬 제주, 유네스코 3관왕 제주'라는 피켓을 들고 MC몽의 노래 'LUV D.N.A'에 맞춰서 춤을 추며 제주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이어 용두암, 삼성혈, 국립제주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재래시장, PC방, 볼링장 등 생활문화 체험도 즐겼다.

【 기획 】

고려인 4세로 카자흐스탄 국립사범대 한국어과 4학년인 최안 젤리나(20·여) 양은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바다는 동경의 대상”이라며 “모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해 무척 기쁘다”고 흥겨워했다.

대학생들은 2일 올레 코스를 돌고 3일에는 성읍민속마을, 민속자연사박물관, 거문오름을 둘러보고 3일 오후에 여객선을 타고 목포항으로 이동했다.

“다 같이 돌자, 광주 한 바퀴”

4일 목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광주의 곳곳을 돌아보며 ‘맛과 예향의 도시’를 탐험했다.

이들은 역사와 풍류, 문화와 맛에서 평화와 인권까지 함께 공존하는 광주에서 창조적 대한민국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가능

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4일 저녁에는 광주시 무등경기장으로 이동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경기장에서는 야구를 관람하며 플래시몹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맛보기도 했다.

특히 경기 전 운동장에서 플래시몹으로 한국의 스포츠 현장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시구와 시타 등 짜릿한 시간을 보냈다.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조규형 이사장은 “7박 8일간 좋은 인연과 추억을 만들어 한국과 전 세계 좋은 친구들과 가족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월드컵의 나라, K-Pop의 나라, 창조경제의 삶으로 도약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갖은 좋은 인식을 평생 잊지 않고 거주국에서 활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폐막식에서 참가자 대표로 나온 중국 참가자 이송화 학생은 “제

참가자 소감



김미연(21·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 컨텐퍼러리 작곡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동시에 회계학도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다.

2000년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 학교에 다니면서 음대 출신자들이 모여 ‘모노크롬 프로젝트’라는 음

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풍광이 아주 아름다웠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특히 음식이 모두 입맛에 맞아서 즐거웠다. 제주도 휴양지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바비큐 파티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서 온 친구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서 앞으로 계속 연락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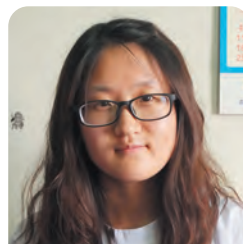
이지숙(24·인도)

인도 첸나이 스텔라마이스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돌아가면 선생님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받으면서 가족이 이민을 왔다.

이번 초청연수는 모두가 한민족이라는 것이 가장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인도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고, 한국에 와도 적응이 잘 안 돼 늘 걸도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연수에 참가한 친구들은 모두 같은 정체성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참가 신청을 했다. 초중고는 미국 국제학교에 다녔고 대학은 현지 인도학교를 나왔기에 다문화에 익숙하다. 목표는 국제학교 선생이 돼서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다.



량옥화(23·중국)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만 살았기에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도 처음이다. 제주도의 경관이 무척 뛰어나다. 얼마 전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당연하다고 할 만하다. 섬 전체가 너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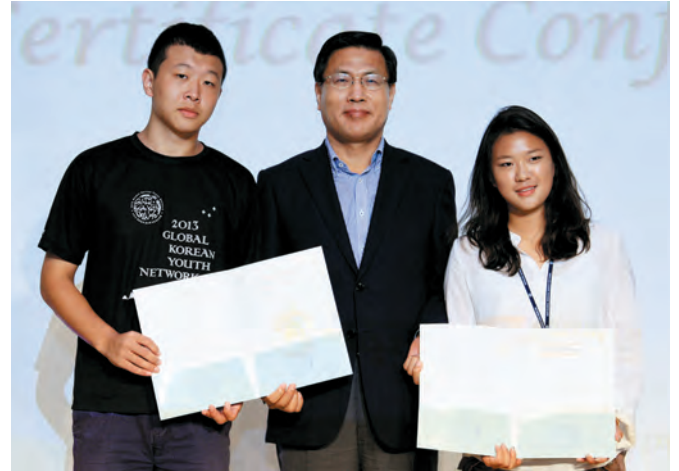
제주도에서 맛과 인정을 함께 느꼈다. 한민족은 어디에 살아도 만나면 반갑고 정이 통하는 것 같다. 젊은 나이에 친구도 사귀고 견문도 넓힐 수 있어서 초청연수에 참가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졸업 후에는 은행에 취업하거나 회계사가 될 계획인데, 필요하다면 외국 유학도 생각하고 있다.

주도의 성산 일출봉에 오른 것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며 “리더로 참가하면서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프랑스에서 참가한 정예슬 학생은 “모두가 나처럼 재외동포로 살아가는 친구들이라 비슷한 고민과 경험이 있어서 쉽게 친해졌다”며 “5년 전에 청소년 초청연수에 참가한 덕분에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됐고 이번에 더욱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연수는 세계 각국의 한인 청소년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로, 쌍방향의 문화적·직접적 체험 학습을 통해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창**



8월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이종학(왼쪽), 정예슬 학생에게 수료증을 나눠주며 “모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평생 잊지 말고 거주국에서 활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 마르코스
(20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은 집에서 부모에게 배웠다. 한국은 나라가 깨끗하고 안정적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소수인 동양인으로 살다가, 이곳에 오니 모두가 한국인뿐이다. 그제 큰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모국이라는 말을 하는가 싶었다.

8일 동안 먹어본 한식은 맛있는 것이 없었다. 짬뽕이 기억에 남는다. 벌써 한국에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돌아가면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완벽하게 구사하고 싶다. 여동생도 경희대 어학당에 등록해 한국어 연수를 배운 적이 있는데, 우선 돌아가면 한글학교를 통해 공부를 더 할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로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왔었다. 그때 아주 좋은 추억을 쌓았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지내는 해외 친구들이 있다.

졸업 후 호텔에 취업하기 전에 세계 일주할 목표가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만난 친구들도 다시 만날 계획이다. 무척 가슴이 설레는 일이다. 이번 연수에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계획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오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해줄 생각이다.



권지훈(22 · 미국)

어머니가 뉴욕에서 한국문화원에 근무하면서 초청연수 모집공고를 보고 권유를 했다. 미국에서 출생하다 보니 모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한국에서 열리는 캠프에 갈지 망설이기도 했다. 한국은 5년 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었다. 제

주도는 처음이어서 참가를 무척 잘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다.

5년 전에는 다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그때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체성에 대해서도 또 내가 가진 많은 특징이 곧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누나는 한국이 낯설다며 잘 오려 하지 않는 데 돌아가면 한국여행을 꼭 해보라고 권할 생각이다. **창**



남정우(20 · 베트남)

호찌민의 한국 국제학교를 졸업했고 싱가포르계 PSB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10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와서 살고 있고, 한국에는 2009년에 병원 치료로 온 것이 이 세 번째 방문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청소년 초청연수



모국을 방문한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들이 15일 오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애니깽’ 후손들의 뿌리찾기 “모국의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동포재단,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40명 초청연수

재외동포재단은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40명이 참가한 ‘2013 멕시코 한인 후손 초청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모국 연수에는 앙헬리카 황보 재멕시코한인후손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멕시코 한인 후손 30명, 쿠바 한인 후손 10명이 참가해 서울, 울산, 경주, 대전, 전주에서 모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체험하며 모국의 따뜻한 환대에 감격해했다.

이민사 박물관서 선조 발자취에 ‘감격’

13일 오후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이민사박물관. 쿠바에서 온 엘리자벳 주닐다 산체스 리베로(한국명 성애리·21·여) 씨

가 자신의 증조부 사진 앞에서 꼼짝도 않고 서서 눈물을 흘렸다.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는 증조부의 당시 삶이 고스란히 전해왔기도 했지만 한눈에 할아버지를 알아본 기쁨의 눈물이었다.

메이라이 콘트레라스 풍(17) 양도 외교조부모 사진 앞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란 사실에 감격했다. 그 옆에는 대한독립 18주년을 맞아 한인회 간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멕시코에서 온 윌리엄 알레한드로 카스탈로 쿠에레로(22) 씨도 박물관에서 사진 속의 증조부를 만났다. 그는 “박물관에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우리 조상이 어떻게 멕시코에 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 기뻐다”고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7박 8일간 고국 방문 여정의 첫 일정으로 박물관을 찾았

다. 이곳에는 1905년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멕시코에 도착한 1천33명의 초창기 생활상과 이 가운데 288명이 1921년 쿠바로 재이주를 한 기록이 전시돼 있다.

쿠바 아바나대를 올 초에 졸업한 배어투리즈 몬테드 데 오카 루이즈(한국명 임보람·26) 양은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교양강좌로 한국어도 배웠다”며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다. 돌아가면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물관 견학을 마친 후손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스탠퍼드호텔에 이동해 스탠퍼드 홀에서 ‘에네켄, 멕시코 이민 100년 다큐’를 시청했다.

이어서 열린 개회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모국의 전통문화와 발전한 모습을 체험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자긍심을 갖고 멕시코와 쿠바에서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광복절 경축식 참석·임진각서 분단 현실 체험

“멕시코에서 한인 후손들의 가장 큰 축제가 광복절입니다. 모두 모여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해왔지요. 올해는 모국에서 열린 기념식에 멕시코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해 꿈만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15일 오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석으로 한껏 상기되었다.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40명이 기념식에서 선조가 머나먼 타국에서 한민족의 얼을 지키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며 울산 시민의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온 윌리엄 알레한드로 카스틸로 쿠에레로(22·남) 씨는 “선조가 선인장과 사랑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받은 임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던 사실을 모국이 기억해주시 무척 감사하고 뿌듯하다”며 감격했다.

쿠바에서 참가한 로날도 자비어 곤잘레스 모레노(17·남) 씨도 “대한 독립 만세 삼창을 하는데 가슴 벅찬 뜨거움을 느꼈다”며 “한민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맞아준 모국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기념식을 마친 한인 후손들은 오후에 경주로 이동해 신라 문화유적 답사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14~15일 울산에 머물면서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을 하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것에 놀라워하며 ‘넘버원 코리아’를 외치기도 했다.

1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견학한 후에는 대전시내에서 흡스



쿠바에서 온 엘리자베트 주닐다 산체스 리베로(한국명 성애리·21·여) 씨가 13일 오후 인천시 이민사박물관에 전시된 자신의 증조부 사진 앞에서 꼼짝도 않고 서서 눈물을 흘렸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멕시코·쿠바 한인후손들이 플래카드에 통일을 기원하는 방문기념 문구를 쓰고 있다.



19일 서울 상암동 스탠퍼드호텔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함께 ‘아이러브 코리아’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레이를 하며 한국 가정에서의 따뜻한 환대를 받기도 했다.

17일 전주로 이동해 전통문화를 체험한 이들은 19일에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철책선으로 가로막힌 모국의 분단현실을 피부로 느낀 뒤 플래카드에 통일을 기원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한인 후손을 이끌고 연수에 참석한 양헬리카 황보 재멕시코한인후손회 회장은 19일 저녁 폐회식 답사에서 “멕시코에는 4만여 명의 한인 후손이 살고 있는데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며 “그리움으로만 간직해온 모국을 찾게 돼 기쁘고 조상과 민족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모국어 사랑’으로 빛은 동포문학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응모 1천225편 중 수상작 30편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0편을 21일 발표했다.

성인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시 부문에 박원규(파테말라) 씨의 ‘아버님 전상서’, 단편소설 부문에 이귀순(호주) 씨의 ‘오시리스의 저울’, 수필 부문에 박성기(뉴질랜드) 씨의 ‘공씨책방을 추억함’이 각각 선정됐다. 청소년 글짓기부문 최우수작은 중고등부 김수현 학생(일본)의 ‘재일교포의 역사 속에 있는 김치’, 초등부에는 노지영 학생(미국)의 ‘미국에서 사는 진돗개’가 선정됐다.

심사위원 “이민의 애환, 심사 읽고 폭 빠져들어”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시 수상작 ‘아버님 전상서’는 거칠거나 어설픈 욕망을 다 견어내고 겸허의 밥상을 받은 자처럼 홀가분한 정서를 보여주었다는 점, 단편소설 수상작 ‘오시리스의 저울’은 외부 폭력에 대해 내면 성찰을 통해 세상을 향해 끝까지 관

용과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결미가 아름다웠다는 점이 수상으로 이끈 사유라고 밝혔다. 수필 수상작 ‘공씨책방을 추억함’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부문 중고등부 최우수수작 ‘재일교포의 역사 속에 있는 김치’는 늘 먹는 김치를 소재로 삼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해 중심 줄거리와 잘 어우러지게 엮었으며,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으로 연결시킨 수작’이라고 극찬했다.

초등부에서는 노지영 학생(미국)의 ‘미국에서 사는 진돗개’가 최우수수작으로 선정됐으며, ‘한글학교 특별상’은 미국의 ‘느티나무한글학교’, 호주의 ‘린필드한국학교’, 태국의 ‘치앙마이한글학교’가 공동 1위로 선정됐다.

한편 미국의 강남옥 씨는 시 부문 ‘주뉴욕총영사관’, 단편소설 부문 ‘압생트’ 작품으로 동시에 각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

를 안았다.

심사위원 소설가 오정희 선생은 “글은 진정성과 진솔함이 돋보일 때 생명을 얻는다. 기교 부리지 않은 작품과 글에 대한 거리를 유지한 작품들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심사위원들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을 만져질 것 같은 솜씨로 묘사한 글을 보면 심사를 한다는 입장을 잊고 한없이 빠져들곤 했다.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쓰는 모국어의 문학이란 사실 이 하나로 충분히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응모작에 대한 심사소감을 밝혔다.

시 부문 심사를 맡았던 신달자 시인은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쓰는 모국어의 문학. 사실 이 하나로 충분히 심사위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가능한 여러 국가를 고려해 선정했지만 본선에 오른 15편은 모두 귀한 작품이라서 전부 상을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수필을 심사위원들은 “세계 곳곳의 동포들 작품을 다 읽고 냈을 때, 원고 더미를 끌어안고 한바탕 울고 싶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그 길에 이르는 동안 어떤 애환인들 없었랴”며 “어느 응모자의 작품에 ‘가나다병’이란 말이 나왔다. 가고 싶다는 향수병, 나는 외톨이라는 왕따병,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후회병. 그래서 앞 글자를 따 ‘가나다병’이라 붙인 말에 깊이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해마다 응모작 증가, ‘동포 문학’ 등용문

올해 문학상은 총 35개국 1천225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시 부문에 시인 신경림, 신달자, 조정권, 단편소설 부문에 소설가 최인석, 김형경, 구효서, 수필 부문에 소설가 오정희, 복거일, 이경자, 청소년 부문에 소설가 박상우, 서하진, 권지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상금은 성인 부문별 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가작 50만원이고, 청소년 부문별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가작 30만원, 한글학교 특별상 200만원 등이다

성인부문 대상 수상자 3명은 모국 초청해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 코리아페스티벌 개최 시 시상할 예정이며, 초청 기간 동안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상을 제외한 각 부문별 수상자 시상은 거주국 관할공관을 통해 전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은 재외동포가 이국땅에서 한글을 사용하여 문예창작을 함으로써 민족의 글 ‘한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1천200여 편이 접수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문학상이 15회를 맞은 동안 매년 응모작이 증가했다”며 “이 상이 동포들에게 정체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작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들을 책으로 엮은 ‘재외동포 문학의 창’은 올해 하반기에 출간돼 국공립 도서관과 재외공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본 공모를 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창](#)

수상자 공고

■ 시 부문

- 대 상 : 박원규(과테말라)
- 우 수 상 : 강남옥(미국), 정국희(미국)
- 가 작 : 백복현(캐나다), 변재무(미국), 최장오(인도네시아)

■ 단편소설 부문

- 대 상 : 이귀순(호주)
- 우 수 상 : 강남옥(미국), 이현주(미국)
- 가 작 : 허선자(중국), 이권재(미국), 박미자(캐나다)

■ 수필 부문

- 대 상 : 박성기(뉴질랜드)
- 우 수 상 : 김외숙(미국), 박정은(캐나다)
- 가 작 : 김인순(캐나다), 정동철(호주), 천광일(중국)

■ 중고등 부문

- 최우수상 : 김수현(일본)
- 우 수 상 : 최원종(중국), 이수진(페루)
- 장 려 상 : 길제은(중국), 이유라(태국), 오의찬(뉴질랜드)

■ 초등 부문

- 최우수상 : 노지영(미국)
- 우 수 상 : 김태림(인도네시아), 정안드레(브루나이)
- 장 려 상 : 조수진(미국), 이수빈(호주), 안정현(중국)

■ 한글학교 특별상

- 네티나무한글학교(미국), 린필드한국학교(호주), 치앙마이한글학교(태국)

수상자 소감

▶ 이귀순(호주) 단편소설 부문 대상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적은 있지만, 15년 만에 쓴 첫 번째 소설이 기적처럼 수상의 기쁨을 안겨줄 줄은 몰랐다. 사십을 훌쩍 넘긴 늦은 이민생활을 시작한 탓에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그동안 문학을 잊고 살았다. 늦게나마 다시 문학의 바다 속에 몸을 담그자 나신이 촉촉하게 생기를 찾았다.

이민 생활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은 사실들 속에서 글감을 찾아 이야기의 틀 속에 가두어 보고 싶다. 좋은 자리 마련해준 재외동포재단과 글을 뽑아 준 작가님에게 감사하다. 이민 생활 속에서도 모국어로 문학적 영역을 지켜 나가는 호주의 모든 문우와 또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외국어라는 짙은 젖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로 열심히 글을 쓰시는 재외동포 모든 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

▶ 박성기(뉴질랜드) 수필 부문 대상



아버지는 생을 마치기 전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 인생 짧다”고 말해주셨다. 지난해 6월 오클랜드문학회, 줄여서 오문회를 만들었다. 시 쓰는 최 선생, 소설 쓰는 김 선생, 수필 쓰는 백 선생과 함께 네 명이 뜻을 모았다. 첫 타석 치고 분에 넘쳤다. 어설플 아마추어 타자가 만루 홈런을 친 기분이다.

내가 운영하는 한솔문화원은 큰 아들 ‘한솔’이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훗날, 이민 1세대는 밥만 먹고 살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 누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꿈틀거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 박원규(과테말라) 시 부문 대상



이국의 풍경이 낯설다. 산다는 것 만큼은 유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어 선인장처럼 가시가 나고 속은 깊은 우물을 갖게 된다. 때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종의 의문을 갖는데 답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로 가는 것이었다.

이민은 집만 옮기는 이사가 아니었다. 마음도 옮기고 어제도 옮기고 내일도 옮기는 개인에게는 역사이며 파괴이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나와 끊을 수 없는 과거 아버지에게 대한 기억은 무엇으로도 대속할 수 없는 부채였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선언에 맹세문이었다. 이렇게 아버님은 시가 되고 시는 아버님을 모자이크 해갔다.

오랜만에 안 계신 아버님께 보내는 ‘전상서’를 썼습니다. 나의 근황을 아버님에게 전하는 지혜와 기회를 마련해준 재외동포재단과 시를 통해 아버님에게 편지를 붙여준 심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수현(일본) 중고등부 최우수상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글짓기는 고교 3년동안 한일문화동아리인 ‘시나브로’에서 느낌을 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김치에 관한 논쟁과 재일동포의 역사에는 아픔이 깃들여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어려서 할머니에게서 항상 김치냄새가 났고, 그 기억은 당시 재일동포의 궁핍함과 막막한 현실을 되새기게 한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고도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역사를 잊지 말고 세계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노지영(미국) 초등부문 최우수상



먼저 엄마에게 감사드리고 저를 응원해준 한나 언니와 함께 공부했던 정선, 지우 언니와 송이에게 고마워요.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울고 웃고 싶었어요.

글쓰기에 도전했을 때 엄마의 잔소리는 정말 대단했죠. 글쓰기 싫어서 막 쓸 때 혼도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코리아인 아메리칸이라도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걸 깨달아서입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 있고 복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9월이 오면 과테에도 감이 나옵니다.

한 친구가 산 루카스 산속에서 가을을 걷어와 감으로 내뺍니다

며칠 전 가게 귀통이에 쌓아놓은 감 몇 개를 골라보니 아직은 나무의 힘이 남아있는 선감이었지만 사람들은 덜 익은 감을 사간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감을 팔면서 아직 가을이 깊지 않았으니 여름 폭지가 떨어질 때까지 며칠 더 가을을 익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참 이상한 감장사입니다

조금 속고 속이는 감칠맛이 없어 밋밋하지만 이것이 익은 감을 파는 장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을 며칠 일찍 팔았지만 사가는 사람은 며칠 묵혀가면서 익어갑니다 그러니 감을 살 때 너무 익은 감을 사면 손해를 봅니다 팔 때도 비슷하겠지요

아버님

저도 그 감밭에 가보았습니다

아침 이마는 차갑고 검혀해 지더군요

산비탈에 사는 감나무는 한편으로 몸을 기울려야 가지가 펴지고 큰 감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당한 거리가 좁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에는 가지치기가 없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큰 감부터 따낸 것인지 익은 감부터 따낸 것인지 궁금했지만 낮은 가지에 열린 감부터 따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감은 높은 가지에 많이 달려있었습니다

과수원 지기에게 물었지요

감나무는 몇 그루며 얼마나 오래됐는지...

과수원 지기는 모르더군요 감나무를 심은 사람과 감을 따는 사람과 감을 사는 사람이 다 다르니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감밭에 가 감을 따면서 저도 어느덧 그때의 아버님 나이쯤 된 것 같습니다 속은 덜 탔지만 빛깔은 익었습니다

귀에서 북이 울리고 가슴에서 징징 소리가 납니다 하루 종일 감처럼 매달려 있어도 답답하지 않고 아침보다 저녁이면 더 빈손이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편안하고 비탈에 서 있어서인지 허리를 세우면 여기저기가 아파옵니다 누우면 누구에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믿음은 기름종이처럼 뻗뻗하여 밀어내는 중이고 무슨 곡절이 그리 많은지 그때마다 인습을 배우는 것이 힘이 듭니다 웃고 우는 것이 끝끝내 이 세상을 놓치않는 방법처럼 고집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겠습니까

9월 나무에서 따온 감을 바구니에 쌓아두고 가을을 익히는 친구처럼 누군가가 저를 따 가을 바구니에 쌓아두고 여름을 익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계절입니다

“재외동포 이해교육 내실화 · 체계화 절실”

재외동포 전문가 초청 토론회서 “교양과목 개설 필요” 등 강조



재외동포재단은 7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전문가 30명을 초청해 ‘올 상반기 실시한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개선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올 3~6월 전국 16개 대학에서 특강 형식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교양과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재외동포재단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전문가 30명을 초청해 올 상반기 실시한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개선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재단은 지난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고교생 이외에도 16개 대학에서 학생 1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단 이사장, 이사가 특강을 하는 형식으로 20회에 걸쳐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수강생 중 12개 대학 605명이 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중 66.2%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이 재외동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64.6%는 이해교육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만족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은 ‘강의 내용이 너무 많다’ (31.7%), ‘강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 (29.3%) 등의 이유를 들었다.

보완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2, 3세 재외동포를 같은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와 모국 사이의 관계, 교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국 동포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재일동포(49.1%), 재미동포(46.8%), 재중동포(35.9%), 재러·CIS동포(33.7%) 순으로 나타나 각기 다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는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러·CIS동포, 재중동포 순으로 좋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현황과 역사, 생활상을 모두 이야기하려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이 아쉬웠다”며 “재외동포 이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거나 강의 시리즈를 진행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외동포 이해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국외대의 임영상 교수는 “재외동포 거주국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리봉동 조선족 타운, 안산 사할린 한인 고향마을, 고려인 타운 ‘옛골’ 등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외국의 ‘코리아타운’을 찾아가볼 기회를 주는 것도 동포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는 “일정한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 개발이 시급하고 차세대 동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슬픈 과거사는 지양하고 성공 지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서울대 교수는 “2014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에 ‘주제 탐구 세미나 : 재외한인’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학생 설계 전공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현장학습, 인턴십, 자율연구 등을 축적하면 장기적으로 ‘재외동포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공동대표, 임채완 전남대 교수, 김진규 고려대 교수, 박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재미한국학교 교사들 하와이에 모여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제31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7월 19일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의 힐튼하와이언빌리지에서 열렸다.

미국 내 1천200개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제31회 학술대회 및 총회가 7월 19일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의 힐튼하와이언빌리지에서 열렸다.

전날인 18일 분반 공부, 종이접기 교육,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일정을 시작한 한국어 교사와 교장, 협의회 임원 등 400여 명은 20일까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특강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영길 하와이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왔고 지금은 2, 3세대 젊은 동포들이 활발하게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면서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미 양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재미동포 사회가 이처럼 큰 발전을 이루는 데는 한글 교육을 중심으로 민족의 자부심을 바로 세운 한국학교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이번 대회에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서영길 주 호놀룰루 총영사,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손창현 나의꿈국제재단 이사장 등이 참

석했다.

강용진 NAKS 회장은 “110년 전 한국 땅 밖의 세상이 어떠하리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배를 타신 102명의 용감한 선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면서 “한국의 얼과 문화를 이어가고 앞으로 110년 후의 우리 후손이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터전을 계속 닦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100년을 내다보고 차세대 육성에 헌신하신 이민 선조의 큰 뜻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라며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 교육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세계한국학교후원회, 종이문화재단이 NAKS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허화진 양의문 한국학교 교감, 추은경 불타사 한국학교 교장, 오준석 칼라마주 한국학교 교장 등 11명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명계용 NAKS 중서부 협회장과 김윤희 NAKS 남서부 협회장 등 7명의 NAKS 임원은 국립국어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진 워싱턴 세계로 한국학교 교장(40년 근속), 상항 한국학교·뉴욕 한국학교·하와이 한인사회학교(개교 40주년)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이 주어졌고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학교 26곳과 근속 10년 이상 교사 59명에게는 NAKS 감사패와 감사장이 수여됐다.


NAKS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미 전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차례대로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대회는 내년 7월께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논문열람 PC 설치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국회도서관과 제휴를 맺어서 자료실에서 국회에 소장된 각종 논문의 원본을 열람하고 프린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센터 1층에 위치한 자료실에는 현재 1만 권 이상의 동포관

련 장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각종 정기간행물과 보고서 등도 구비되어 있어서 동포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재단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국회논문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관련 논문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열람 및 프린트 비용을 재단이 부담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익 사회 환원은 경영의 주요 덕목”

권철민 스페인 인터볼고 그룹 이사 & 인터볼고CC 대표

“평생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실천해온 부친의 뜻을 저도 이어 받아 수익의 사회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습니다. 인터볼고가 스페인에 본사를 둔만큼 양국의 교류 확대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한상(韓商) 중 하나인 스페인 인터볼고 그룹의 권영호 회장의 아들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권철민(40) 인터볼고CC 대표는 생후 7개월 때 스페인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세대.

권 이사는 “어려서 건너갔지만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란 걸 하루도 잊고 산 적이 없다”며 “앞으로 스페인과 한국의 교류 확대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한인총연합회 주최로 7월 12일부터 열흘간 열린 ‘2013 재유럽한인차세대 국토대장정’에 참가해 전 일정을 완주했다.

“밭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하루하루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때는 가슴 먹먹한 아픔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해외에 사는 동포에게는 큰 힘이 되듯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권 씨의 부친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수산업, 호텔, 골프, 냉동창고 등 세계 곳곳에 2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매출 1조 원을 올리는 인터볼고 그룹의 권영호 회장이다. 그는 그룹의 이사이면서 계열사로 스페인 리아데비고에 있는 인터볼고 골프장의 대표이사를 맡는 등 후계자로서 부친의 경영을 돕고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늘 ‘너의 뿌리는 대한민국’ 이라며 틈틈이 한국에 데려와 곳곳을 보여주곤 했다”며 “지금도 고향인 울진에는 매년 방문하고 있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유럽은 개도국과 달리 완성된 사회라 성공한 한인 기업인이 좀처럼 드문 곳이다. 인터볼고는 오스트리아 박종범 회장의 영산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기업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부친의 경영철학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자신도 이어 나갈 생각이라며 매년 스페인의 젊은 기업인과 공무원을 초청해 한국의 곳곳을 보여주는 교류회를 열고 있다.



그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주 경찰 후원회에 보내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시설건립 지원이나 장학금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서 초·중·고교를 나왔고 마드리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그는 “아버지로부터 한국이 내 뿌리이고 잘 알아야 한다는 권유를 받아서 2000년에 연세대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도 했다”며 “방학 때면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한국을 직접 체험한 것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스페인인 4천500만 명의 인구로 최근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전자 분야의 진출이 눈부신 곳이다. 권 씨는 “스페인인 유럽에서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하며 국민 기질도 닮은 곳이 많은 나라”라며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페인과의 교류가 그동안 적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볼고 그룹은 직원이 3천 명에 이른다. 분야별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는 “수산업으로 출발한 인터볼고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스페인 조선소를 인수해 불경기에도 인력감축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을 중시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가치 창조 기업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朴대통령 “日, 과거 반성하고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과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4부요인 등이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흔들림없는 자세를 지키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무리 아픈 상처 같아도 해가 지나면 조금씩 아물기 마련인데 올해는 일본이 연일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픔이 더 커졌을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인식의 문제를 말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며 “우리가 국민통합을 이뤄가기 위해 서라도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철 지난 이념을 잣대로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순국선열 정신인 나라사랑 정신을 가르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유족들도 그 고통을 함께했다. 또 광복 이후에도 조국 발전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다”며 “애국지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존경과 예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직전 강창희 국회의장 등 4부요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광복회 관계자 등과 비공개 환담에서도 “이런 오늘이 있기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께 우리가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건국’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언급하면서 1948년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과 관련,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해방 이후 가난과 6·25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

美 글렌데일에 해외 첫 위안부 소녀상

가주한미포럼 제막... 美 정치인들 '日 진정한 사과' 촉구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글렌데일 시의원들이 7월 30일 미국 글렌데일 시립 도서관 앞에서 제막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비극을 세계에 고발한 '평화의 소녀상'이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똑같은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림 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은 7월 30일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서 소녀상을 제막했다.

소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부부 작가가 똑같이 새로 만들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설명하는 석판이 딸린 점이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과 다르다.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상징물이 미국 서부 지역 지방정부 공공부지에 들어서는 것도 처음이다.

제막식에는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와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 글렌데일 시정부를 대표한 시의원 4명, 그리고 지역 정계 인사와 지역 시민, 한인 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 의원과 연방 하원의외교위원장이자 지한파로 유명한 에디 로이스 의원(공화), 그리고 글렌데일이 지역구인 애덤 시프(민주) 의원 등 연방 하원의원 3명은 영상 메

시지를 통해 소녀상 건립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글렌데일 시장을 세 차례 역임하며 위안부 규탄 결의안과 위안부의 날 채택에 이어 소녀상 건립에 앞장선 프랭크 쿼테로 시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4명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미래 세대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려면 일본이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이 소녀상을 보면서 많은 미국 국민이 일본의 만행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렌데일 거주 일본계 미국인을 대표한 마이클 고다마 씨는 "위안부 규탄 결의안 채택과 위안부의 날 지정, 그리고 이번에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우는 등 글렌데일 시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계 미국인 시민단체 NRCC 캐시 마사오카 대표는 회원 1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

마사오카 대표는 김복동 할머니 앞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인은 과거 역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연방 하원이 의결한 위안부 결의안과 같은 내용의 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매년 7월 30일을 '일본군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제막식도 글렌데일 시정부가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의 날'로 맞췄다.

시의회가 부지 제공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계의 반발과 로스앤젤레스 주재 일본 총영사의 압박을 받는 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미국에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은 미국 시민이라면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계의 반대를 사실상 무시하고 소녀상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가주한미포럼 윤석원 대표는 "이번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위안부 기림 시설을 미국 전역 공공 부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

권훈 연합뉴스 LA 특파원

우리말 배워 봅시다!

~아/어지다, ~아/어하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카드 섹션이 스포츠경기 응원에 등장했다. 그런데 간혹 뒷부분에 나오는 ‘이루어진다’를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루어’와 ‘진다’를 띄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

이것은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어지다’라는 것은 ‘이루어지다, 찢어지다’와 같이 동사 어간에 붙어서 수동이나 자동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다. 또 ‘길어지다, 짧아지다’와 같이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바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지다’란 말은 하나의 어미이고, 앞말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붙여 쓰도록 돼 있다.

그리고 ‘기뻐다, 아프다, 행복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기뻐하다, 아파하다, 행복해하다’와 같은 동사로 바꾸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형용사 어간 뒤에 ‘~어하다’를 붙일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기뻐’와 ‘하다’를 띄어쓰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태깅스럽다

우리는 흔히 깔끔하고 맛이 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고 ‘맛깅스럽다’고 말한다. ‘맛깅스럽다’는 말은 ‘맛이 입에 당길 만큼 먹음직스럽다’는 뜻이다. ‘맛깅’이라는 말은 ‘맛’이라는 명사 뒤에 ‘~깅’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것이다.

‘~깅’이라는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성질이나 기세를 뜻하는 말로 언제나 명사 뒤에 붙어서 본래 명사의 뜻을 명사적으로 만들어 주거나, 뜻을 약간 변화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단어로 ‘때깅, 빗깅, 색깅, 성깅, 태깅’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때깅’이라는 말은 옷감 같은 것이 눈에 선뜻 비치는 맵시와 빗깅을 뜻하는데, 원래 ‘때’라는 말과는 별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됐다. 그래서 ‘때깅이 고운 옷감’ 또는 ‘때깅이 안 좋은 과일’처럼 사용한다.

그리고 ‘태깅’이라는 말에서 ‘태(態)’는 맵시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태깅이 난다’고 하면 맵시있는 태도가 보인다는 뜻이지만, ‘태깅스럽다’고 하면 교만한 태도가 보인다는 뜻이 돼서 전혀 뜻이 달라진다.

얹 / 알음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다’처럼 ‘ㄹ’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ㄹ’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ㄹ’ 받침에 ‘ㄷ’을 덧붙여서 ‘ㄹ뎌’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ㄹ뎌’ 받침을 가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알다’의 경우는 이것과 조금 다르다. 이 말은 ‘ㄷ’을 붙여서 ‘ㄹ뎌’ 받침이 있는 ‘얹’과 ‘음’을 붙여서 만드는 ‘알음’이라는 두 개의 명사가 있고, 이 두 개의 파생명사는 그 뜻이 서로 구분되어 쓰인다.

먼저 ‘얹’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얹은 힘이다’와 같이 말함으로써 안다는 것, 즉 지식은 힘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반면에 ‘알음’이라는 말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뽑았다’고 하면 서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뽑게 됐다는 뜻이다. ‘알다’의 명사는 ‘얹’과 ‘알음’,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지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물빛 산빛 청아한 신비의 섬 **울릉도**



1



2



3

맑고 투명한 환상의 해안길

누가 저토록 푸른 물감을 바다에 풀어 놓았을까. 울릉도(鬱陵島)에선 해안가 바위에 파도가 부서지면 하얗다 못해 시리도록 푸르스름한 물거품이 일어난다. 그곳에는 때 묻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바다와 원시림이 간직돼 있었다.

울릉도는 저동항 북쪽의 내수전에서 섬목까지의 동쪽 해안 4.4km를 제외한 39.8km의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놓여있다. 관광객 대부분은 일반 버스나 관광버스에 올라 해안도로 주변에 펼쳐지는 비경을 감상한다.

해안 절경은 도동항 서쪽의 사동항을 지나면서 시작된다. 도로 왼편으로 시원스런 옥빛 바다가 펼쳐지고, 오른편으로는 기암절벽이 이어진다. 가두봉 터널을 통과한 뒤 동글동글 까만 몽돌이 깔린 통구미 해변을 지나면 해안가에 거북바위가 나타난다. 해넘이 명소인 남양항 인근에서는 얼굴바위와 오리바위, 사자바위도 볼 수 있다.

태화의 비경은 향목전망대에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다. 현포는 마을 동쪽 축대암(燭臺岩)의 그림자가 바다에 비치면 바닷물이 검게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고대 우산국의 도읍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현포에서 5분 정도 달려 추산몽돌해변을 지나면 천부(天府)다. 저동에서 출발한 버스의 종착지로 나리분지나 섬목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천부에서 다시 죽암몽돌해변을 지나면 바위들이 바다에서 불췌 솟아난 풍경을 볼 수 있다. 탄바위, 삼선암 등 수려한 바다 풍광이 손에 잡힐 듯하다.

해안 도로 끝에는 관음도가 있다. 다리를 놓아 이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귀청을 울리는 다리를 건너면 산책로가 이어진다. 섬 곳곳에는 전망대도 마련돼 있다.

초록빛 싱그러운 원시림과 '나리 분지'

250만 년 전쯤 화산이 폭발해 형성된 울릉도는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이다.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평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원시림 빼곡한 봉우리들이 섬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최고봉인 성인봉(聖人峯)이 솟아 있다. 울릉도의 진정한 속살을 보고 싶다면 성인봉으로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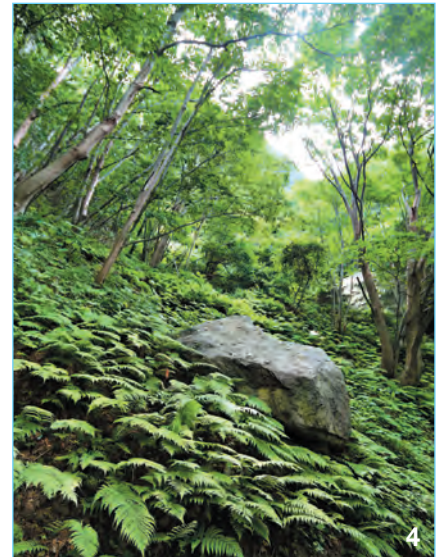
관광객이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등산로는 'KBS 중계소 코스'지만, 풍경이나 분위기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안평전 코스'이다. 성인봉까지의 거리가 2.8km로 가장 짧은 만큼 경사가 심한 힘든 코스로도 정평이 나 있다. 또 KBS 중계소 코스는 사람이 많아 떠들썩하기 때문에 호젓하고 조용한 산행을 원한다면 안평전 코스가 가장 좋다. 물론 성인봉은 섬 북쪽의 나리분지에서 오를 수 있다.

나리분지에서는 울릉도의 전통 가옥인 투막집과 너와집도 볼 수 있다. 투막집은 통나무와 나무껍질로 지은 방이 3칸 있는 집으로 옥수수대나 억새로 지붕을 덮고 돌레도 촘촘하게 막았다. 맨 왼쪽에 자리한 아궁이에 불을 때면 방이 데워지고 연기는 집 바깥의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나리분지는 동서 약 1.5km, 남북 약 2km의 공간이다. 1883년 울릉도 개척 초기에는 93가구 500여 명이 정착해 살았지만 지금은 10여 가구가 감자, 옥수수, 나물을 재배하며 생활하고 있다.

'나리'라는 지명은 개척민들이 섬말나리의 뿌리를 캐 먹으며 연명한 데서 비롯됐다. 나리분지는 북쪽 입구인 나리전망대에서 가장 잘 보인다. 전망대에 서면 봉우리가 물결을 이루며 병풍처럼 둘러싼 평화로운 마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참**

- 1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천부항. 천부는 나리분지나 섬목으로 가는 여행자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곳으로 항구에서는 수많은 갈매기가 주변을 순회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 2 행남등대 북쪽 전망대. 아래 속이 환하게 비치는 옥빛 바다와 지난해 다리가 놓인 관음도.
- 3 독도박물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과 일본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는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이다. 관광객은 팔도총도, 삼국접양지도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침략에 맞선 의용수비대의 활약을 엿볼 수 있다.
- 4 성인봉 등산은 울릉도의 속살을 엿볼 수 있는 체험이다. 안평전에서 출발하면 하늘을 덮을 듯한 나무와 초록빛 무성한 풀이 걸음걸이를 한결 가볍게 한다.
- 5 나리분지는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이다. 북쪽 나리전망대에 올라서면 성인봉 아래 포근하게 들어앉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통 가옥인 너와집과 투막집도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지점은 130km 떨어진 경북 울진군 죽변면이다. 울릉도는 동해안에서 뱃길로 3시간여를 가야 닿는 먼 곳이지만 아름다움과 독특한 매력, 먹거리, 독도를 찾아 매년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www.gov30.kr)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부 3.0은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합니다. 이렇듯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갑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게 됩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제12차 세계한상대회

THE 12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3. 10. 29(Tue) - 31(Thu)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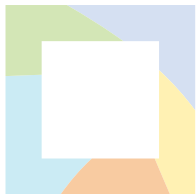
"Hansang Network, The Leading Creative
Economic Strength!"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 재외동포재단, 광주광역시, 매일경제신문 · MBN
후원 |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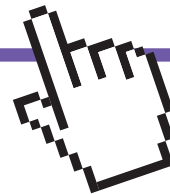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